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6/08~2026/06/14]

2026.06.15

[로봇] 로봇테크쇼 방문 후기

- 로봇 사업 본격화하는 LG, 4,000억 들여 로봇 훈련소 구축 추진. 과기부-로보티즈와는 AI 개발 추진
- 보스턴다이나믹스, 공급망 검토 속 한국 부품사 방문하며 크게 화제
- 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액, 전년비 37% 증가. AI 향 수요 강세. 로봇 부품 수요도 견조

[방산] 유럽 방산주가 부진한 이유

- 인니, 천궁-II로 발송. 인도는 4조원 K9 바즈라 300문 추가 도입 추진. UAE 3번째 천궁 포대 조기 수령
- 미국과 이란의 협상 난항 끝, 종전 타결. 19일 스위스에서 서명. 개전 106일만
- EU와 NATO의 한국을 향한 계속되는 러브콜. 한국 방산 생산 능력 주목

[조선] KDDX를 가져가는 한화오션

- 한국 조선, 5월 신조 수주 점유율 44%. 삼성중공업은 델핀에 이어 코랄까지 FLNG 수주 완료
- 한화오션, KDDX 상설설계 및 선도항 건조서 우선협상자 선정. HD현대중공업에게는 뼈아픈 보안 감점
- 미 하원 상임위, 미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 통과. 세출위에서는 지원 함정 건조 가능성은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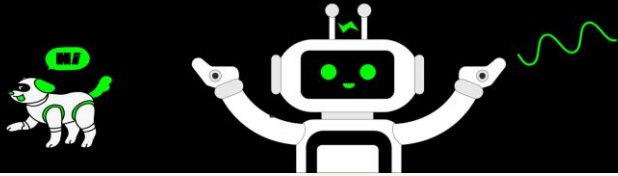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5월 항공 데이터: 견조한 수요

- 반도체 호조에 '인천공항 화물' 회복세, 1~5월 물동량 +3.36%yoy 증가
- 7월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 하락 전환, 국제선도 2개월 연속 인하 기대
- 중동전에 유가 부담 크게 친환경 부담까지, 항공업계 '이중고'

[해운] 중국 원유 수입 급감

- 트럼프, "이란과 합의 14일 서명, 직후 모두에 호르무즈 개방될 것"
- HMM 유조선 이어, 한국 LNG운반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 파나마 운하 유조선 증가로 통항 능력 상한 수준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로보테크쇼 방문 후기

로보테크쇼 방문. 한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욱 돋보임. 하지만, 전시회 기간 동안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기술 업데이트, LG전자의 로봇 데이터 팩토리 구축 등 국내 로봇 업계서도 긍정적 이슈 다수.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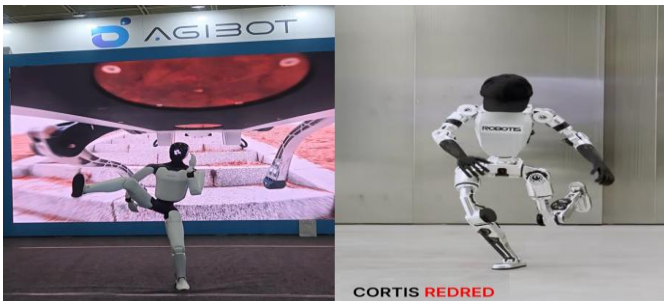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0)

[로보테크쇼 방문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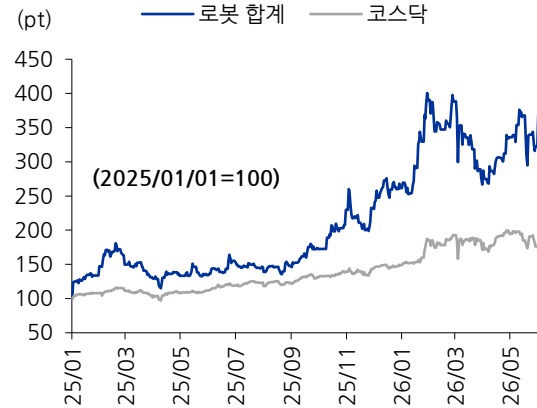
- 지난 6월 10일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로보테크쇼를 방문. 국내외 기업 다수 참여. 중국에서는 유니트리, 애지봇, 엔진 AI, 갯봇 등 다수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기술을 선보임. 작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유니트리의 경우 로봇 동작이 한층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티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고, 에스피지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선보임. 에스피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내 HW 업체로부터 협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 양산 품질을 확보한 기업은 에스피지가 유일하다고 언급.
- 전시회 기간 동안, 국내 로봇 업계에서 긍정적인 소식도 많았음. 로보티즈가 개발한 휴머노이드가 국내 아이돌 춤을 시연하며 고도화된 동적 움직임을 선보이고, LG전자가 로봇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팩토리 가동 준비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의 로봇 기술 추격이 본격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국 부품사를 찾으며 '공급망' 관점에서도 높은 관심.

Key Chart: 애지봇과 로보티즈의 춤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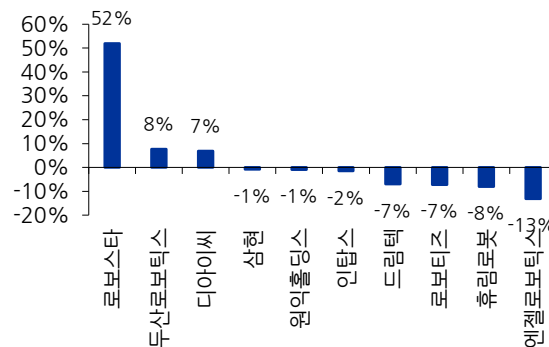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6/08~06/14)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뉴로메카, DN오토모티브에 협동로봇 자동화 구축
- 두산로보-세아메카, 금속 정밀가공 로봇 공동개발

[휴머노이드]

- 레인보우로보틱스, 쿠팡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공급
- 에이로봇, 한화오션과 조선 휴머노이드 실증
- LG CNS, LX판토스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도입

[부품/SW/기타]

- 리얼월드, 엔비디아와 휴머노이드 AI 표준 만든다
- LG, 4,000억 들여 국내 첫 '로봇 훈련소' 짓는다
- 과기부, 피지컬 AI 개발 사업 착수. 2년간 총 340억원
- 에스피지 "모든 로봇 기업서 러브콜"
- 엔젤로보틱스, 뇌-AI-로봇 융합 국책과제 선정
- 두산로보틱스 PRS 잔여 물량 210만주 전량 처분
- 삼현, 내달 관절 액추에이터 '엑슬론' 공개

[글로벌]

- 보스턴다이내믹스, 韓 부품사 찾았다. 양산 채비
- 보스턴다이내믹스 임시 CEO, 佛파리 AI 행사 간다
- 피규어 AI, 5월 휴머노이드 생산 월 250대 도달
- 스탠다드봇, 美 CAPA 확장 위해 2억달러 투자 유치
- 유니버설로봇, 협동로봇 누계 11만대 판매
- 8월 세계 휴머노이드 체육대회 베이징서 개최
- 야스카와, 피지컬 AI에 1,200억엔 투자 추진
- 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액, 전년비 37% 증가
- 獨 노이라, 피지컬 AI 개발 위해 14억 달러 유치



Weekly Keyword

유럽 방산주가 부진한 이유

유럽 방산주 조정이 길어지는 중. 이란 사태로 국방비 지출 확대가 부담이 되기 시작. 생산 능력도 부족해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도 지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재차 높아질 수도 있을 것.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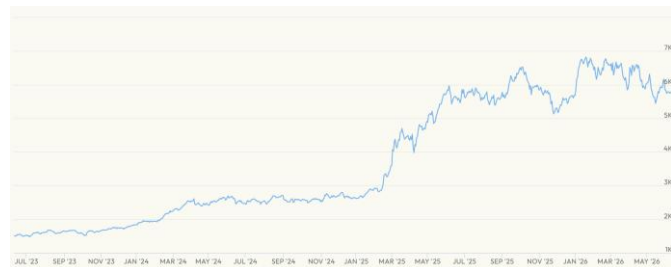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78)

[유럽 방산주가 부진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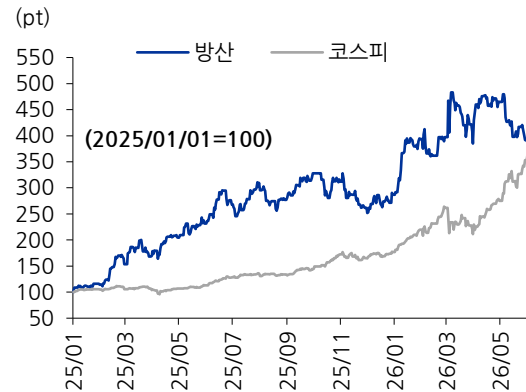
- 유럽 방산주는 연초 이래 조정이 계속되고 있음. 연초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감 고조 등으로 강세 기록했으나, 이란 사태 이후 약세 전환. 유럽 방산주 부진의 첫번째 이유는 이란 사태 장기화로 유럽 국가들의 경기 악화 및 인플레이션이 방산 지출 확대 흐름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 때문. 최근 영국에서는 존 힐리 국방장관이 부족한 국방 예산에 항의성으로 사임. 두번째는 라인메탈 등 주요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수주잔고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
- 한편, 미국은 계속해서 유럽을 압박 중. NATO에 군사력 지원 축소 통보했고, 이번 주 G7 정상회담, 7월 NATO 정상회담에서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전망. 최근 패트리엇 등 미국산 무기들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 유럽이 놓여진 안보 환경은 변화했고, 예산과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차 한국이 주목받을 가능성 높다는 판단. 최근 EU는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속한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유럽 방산 발전에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Key Chart: 유럽 방산 지수 추이(STOXX® Europe Targeted Def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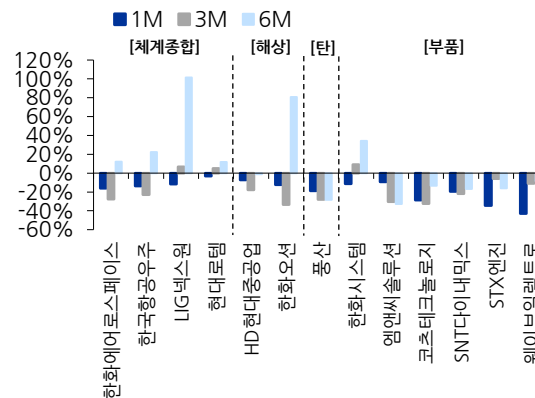


자료: STOXX,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vise

방산 주요 뉴스(06/08~06/14)

[수주/계약]

- 인도네시아, UG D&A에 '천궁-II' 2개 포대 LOI 발송
- 인도, 4조원 규모 K9 바즈라 300문 추가 도입 추진
- [기업별 이슈]
- 한화, '산안법 위반' 인정되면 1년간 방산 계약 못한다
- UAE, 3번 포대 세트 및 요격탄 수신팔 UAE로 수송
- 현대로템 경영진, 자사주 8,683주 매입
- 현대로템, 궤도형로봇 개발. 내년 3t급·28년 10t급 생산
- 폴란드 "현대로템 K2전차 1000대 도입 변함없어"
- 5조 '미르온' 헬기 전면 스톱. 엔진 80% 부식
- 엠앤씨솔루션, 기업가치 제고 위해 200% 무증 단행

[기타]

- 李,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산협력 확대"
- KF-21 인니 분담금 최종 서명. 인니 분담금 6,000억원

[글로벌]

- 트럼프 "이란과 종전 협정 타결, 19일 스위스에서 서명"
- 트럼프, 미사일 고갈에 분노. 방산회사 7곳 CEO 호출
- 美 해군, 신형 훈련기 가격 상한선 상향 조정
- UTS 사업, KAI-록히드마틴에 이어 보잉도 철수
- 레이시온, 패트리엇 공장 확장에 1억 달러 투자
- 록히드마틴, 프랑스 HIMARS 도입 제안, 18개월 납기
- 우크라, 패트리엇 대체할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 독일과 프랑스, 공동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포기
- 이탈리아 국방 "나토, 한국까지 확장해야" 파격 제안
- 日, 무기 수출 전담조직 만든다. 일본판 FMS도 검토



Weekly Keyword

KDDX를 가져가는 한화오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자로 선정. 잠수함의 강자가 수상함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KDDX 이후에는 CPSP 사업자 선정이 나올 예정.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8)

[KDDX를 가져가는 한화오션]

- 오랜 기간 표류하던 KDDX 사업에서 드디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가 선정됨.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한 끝에 한화오션이 총점에서 0.58점 앞서며 승리.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 평가에서 0.64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1.2점 보안감점으로 패배.
- KDDX 사업은 7.8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선도함 32년 배치, 완전 36년 6척 모두를 전력화하는 일정. 한화오션의 입장에서는 수상함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는 기회로, 단기 주가 상승으로 반영되었음.
- 근시일내로, KDDX에 이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사업자 선정도 예정되어있음. 캐나다 스티븐 퓨어 조달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30일 이내로 사업자 선정을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Key Chart: KDDX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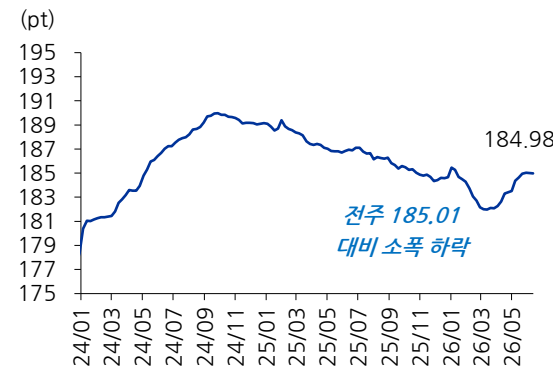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6/08~06/14)

[상선/해양]

- 韓조선, 지난달 전세계 선박 44% 수주했다
- 한화오션 \$131.0m VLCC 4척 수주
- HD현대마린엔진 468억원 선박엔진 수주
-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가스운반선 2척 수주
- 노바텍, 한화오션·MOL 쇄빙 LNG선 10척 인수 추진
- 삼성중공업, 3.7원 규모 코랄 FLNG 본계약 체결
- 韓 오는 올트먼, 삼성과 전략 협업 논의 강화

[특수선]

- 한화오션, KDDX 우협 선정 '보안감점서 승부'
- HD현대중, KDDX 보안별점 가져본 기각에 항고
- 한·캐나다 해군, 부산 남방 연합훈련 실시
- HD현대, UBC와도 첨단 함정 R&D 맞손

[기타]

- HD현대중 임단협 첫 교섭. 영업이익 30% 공유 요구
- 인도 산업부장관, HD현대중 울산조선소 찾아 협력
- HD현대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협상 급물살

[글로벌]

- '美군함 한국 건조 안돼' 미 하원 상임위, 금지법 통과
- 미 하원 세출위, 금지 범위 축소. 지원 함정 외국 건조 가능
- TKMS "韓, 수출 경험 부족. 양해각서는 종이에 불과"
- 中후동중화, 세계 최대 규모 LNG선 건조 착수
- CMA CGM, 형리 중공업에 컨테이너선 8척 발주
- 일본 방위상, 12일 인니 방문해 호위함 수출 협의
- 아르헨, 브라질 손잡고 스코르펜 잠수함 3척 도입

Weekly Keyword

5월 항공 데이터: 견조한 수요

5월 국제선 여객 수는 829만명으로 지속 견조한 모습. 항공화물 물동량과 운임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분기 항공업종의 실적 우려는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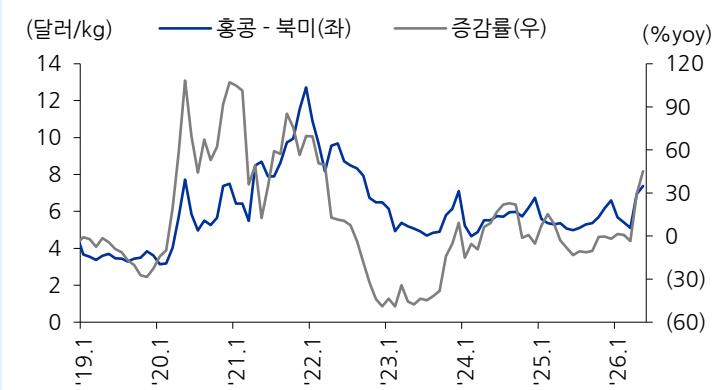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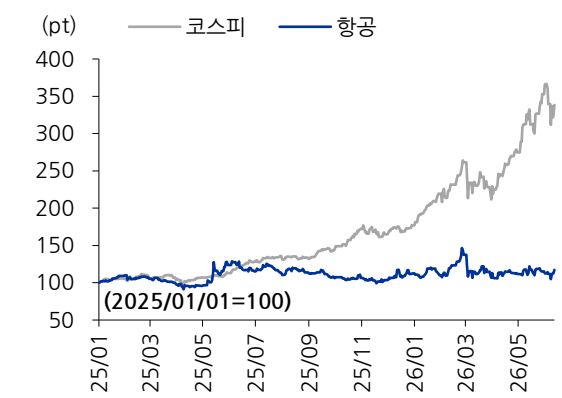
[5월 항공 데이터: 견조한 수요]

- 5월 전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829만명(-1%mom, +8%yoy)을 기록. 미주/구주 노선의 일평균 여객 수는 각각 +14%yoy, +13%yoy 증가. 단거리 노선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높은 yoy 성장을 이어가는 중. 인천 공항 환승 수요도 강세 지속(+35%yoy).
- 5월 BAI 홍콩-북미 운임은 7.37달러/kg(+6%mom, +45%yoy)로 견조한 모습. 견조한 화물 수요와 중동 항공사 운항차질에 따른 공급 제약이 이어지며 긍정적인 항공화물 업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6월은 성수기 수요와 비용 부담(유류할증료) 완화가 맞물리며 주요 간선 노선 중심의 수요 강세 예상. 주식시장 대호황 이후 부 축적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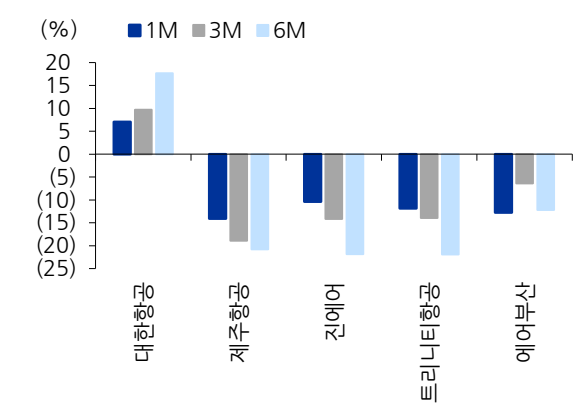
Key Chart: BAI 화물 운임 지수 추이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항공 주요 뉴스(06/08~06/14)

[여객/화물]

-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 국제선도 인하 기대감 '술술'
- 할증료 버티면 중국행 열린다, 주 70회 증편에 업계 기대 ↑
- 반도체 호조에 인천공항 1~5월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세
- IATA, 항공유 폭등으로 올해 항공 업계 수익 전망 반토막
- 유가 급등에 항공업계 수익성 먹구름, LCC 경영난 심화 전망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통합 항공사 출범 앞두고 안전 역량 강화 총력
- 대한항공, 한 달 만에 정시 운항률 글로벌 6위 '반전'
- 제주항공, 선제적 위기 관리 차원 차세대 항공기 8대 감축
- 에어로케이, 청주~하네다 부정기편 개시로 도쿄 접근성 ↑
- 이스타항공, 중국 위주 단거리 노선 확대에 실적 개선 목표
- 위닉스, 파라타항공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 투자자 물색
- 한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 장비 항공운송 전담

[기타]

- 유나이티드 항공 CEO, 항공료 올라도 프리미엄 수요는 견조
- 유가 부담에 SAF 1% 혼합 규제까지, 항공업계 '이중고'

[글로벌]

- 케세이퍼시픽, "고유가 지속시 9월 일부 항공편 감축할 수도"
- 베트남항공, 대한항공 제치고 정시 운항률 3위 기록
- 터키항공 5월 여객 수송량 790만명 기록, 화물도 동반 성장



Weekly Keyword

중국 원유 수입 급감

중국 5월 해상 원유 수입은 650만배럴/일로 급감(-34%yoy). 이는 미국산 등 대체 원유 조달 수요를 확대, 장기적으로 탱커 시장 내 강한 톤마일 수요가 지지될 것으로 판단.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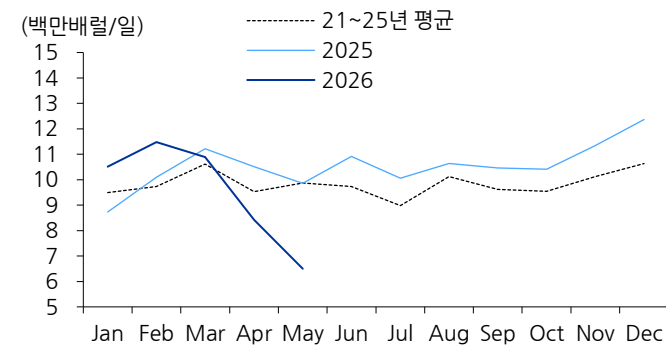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1)

[중국 원유 수입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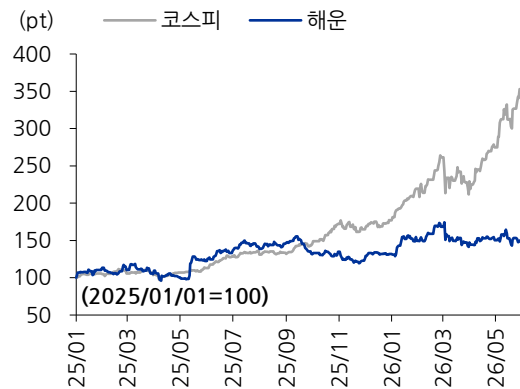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며, 중국의 5월 해상 원유 수입량이 650만배럴/일로 급감. 이는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1Q26 평균치보다 약 40% 낮은 수치. 이는 1) 중국 석유 수요 감소 (경유, 휘발유 소비 10% 이상 감소)와 2) 석유 제품 수출 감소(5월 수출량 전쟁 이전 대비 50% 낮은 수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 급감은 단기적으로 탱커 물동량 부담이나, 장기적으로는 톤마일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6/12 주간 기준 VLCC 운임(MEG-China)은 40만달러/일로 지속 견조한 모습. 중동 원유 차질을 대체하기 위한 미국산 원유 조달 확대에 향해가려는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탱커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Key Chart: 중국 해상 원유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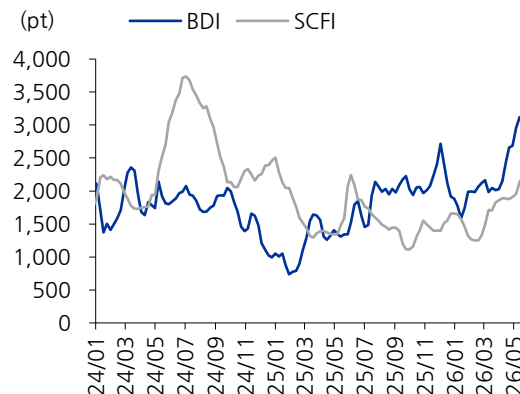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6/08~06/14)

[벌크선]

- 글로벌 벌크선 시장 호황기 진입, 2010년 이후 운임 최고치
- HMM, 컨테이너선 운임 올라도 벌크선대 확장 가속화

[탱커/가스선]

- HMM 유조선 이어, LNG 운반선 1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 후티 공격 재개에 해상운송 긴장, 탱커 운임 영향 주목
- 파나마 운하, 유조선 증가로 통행 대기 척수 40→70척 급증

[컨테이너선]

- 1Q26 서아프리카 컨테이너 수입량 +15%yoy 증가
- 해진공, HMM 매각 산은과 얘기 없어, 부산 이전부터
- 글로벌 1위 컨테이너 선사 MSC, 보유 척수 1,000척 돌파
- Global Ship Lease 컨테이너선 10척 신조 발주로 선대 재편
- Synelsia Limited, 신조선 발주로 피더선 시장 진출

[기타]

- 호르무즈 열려도 끝 아니다, 중동 물류지도 재편되나
- 수에즈 운하 다음 달부터 통행료 인상, 3년 만의 요금 인상
- 호르무즈 일부 통과에도 해운 전쟁위험보험로 부담은 지속
- 이란 선박당 150~200만달러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 확인
- ABS 절충안 제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탄소감축 수단으로"
- 中 5월 자동차 수출량 급증, PCTC 용선료 사상 최고치 경신
- 작년 해운시장 신규 자금 조달 감소, 민간자금 유입은 증가